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이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선한 헌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1명		1명

인 천 교 회 기 도 제 목	목 의 요 청 기 도 제 목
◎ 201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를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 하나님의 경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새해의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새롭게 확장한 영종 지역을 축복하소서. ◎ 강화 그들과 가평 교회를 축복하소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됨을 알게 하소서 -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단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사람들을 접촉하여 남아있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 믿는 이들을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목양하게 하소서 - 사역의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게 하소서

◆ 교회소식

《현금 안내》

1. 2016년 복음에 이르는 교통(현금) 안내

- ① 약정 기간 : 2015.12.27(주일) ~ 2016.1.31(주일)
- ② 현금 기간 : 2016.1.3(주일) ~ 12.25(주일)까지(매월)
- ※ 기존 하신분은 동일한 번호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새로 하시는 분은 약정서에 작성하시어 현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 자세한 것은 약정서를 참고하거나 봉사자들에게 문의바랍니다.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자매 집회 : 2016.1.14(목) 오전10시 산곡동 집회장소

2. 목회자 세미나 겨울 특강 (성경의 핵심)

- ① 일 시 : 1.12(화) 오전 10시 ~오후12시10분
- ② 장 소 : 인천 교회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친구, 성도들

3. 2015 겨울훈련 비디오택회(출애굽기)

- ① 일 시 : 12.23(수)저녁 ~ 2016.1.31(주일)까지
- ② 장 소 : 각 지역별
- * 실시간 집회와 비디오택회를 일원화하여 실시합니다.

4. 인천 교회 전체 집회

- ① 일 시 : 1.24(주일)오전 10시~12시30분
- ② 장 소 : 공촌동집회장소

5. 대학생, 청년, 직장인 쉬임 집회

- ① 일 시 : 1.24(주일) 애잔 오후 6시, 집회 오후 7시30분
- ② 장 소 : 작전동 집회장소

《전국 및 해외 집회 안내》

1. 2016년 서울 전시간 훈련생 모집안내(신청연장)

- 가. 청년전시간 21기
- ① 훈련 기간 : 2016년 2월 ~ 2018년 1월
- 나. 중년전시간 23기
- ① 훈련 기간 : 2016년 2월 ~ 2017년 1월
- ※ 신 청 : 2016.1.18(월)까지 집사실로 신청

2. 서울 전시간 훈련 중년 22기 및 정규 19기 졸업식 안내

- ① 일 시 : 중년 22기 졸업식 : 2016년 1월 23일(토요일) 오전 10시
정규 19기 졸업식 : 2016년 1월 23일(토요일) 오후 2시
- ② 장 소 : 성경전리사역원
- ③ 신 청 : 2016.1.18(월)까지 집사실로 신청

《기타 사항》

1. 이번주 아침부흥 진도 : 2015년 가을장로훈련 메시지6

- * 참고 : 다음 아침부흥 추구는 겨울훈련메시지입니다.
- 추수감사절메시지는 개인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5.12.28.(월) ~ 2016.01.03(주))

지역	1지역 (90)			2지역 (95명)			3지역 (110명)			4지역 (126명)			5지역 (115명)			6지역 (53명)			7지역 (23)			계																	
	학원	학원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신촌																			
인수목표	113			157			110			194			146			80						800																	
주요상	13	16	11	17	25	8	10	14	14	17	11	11	15	3	36	24	26	24	17	9	9	16	24	12	10	5	13	11	28	39	24	24	14	11	16	12	13	10	612
기 도	5	3	5	4			2	4	6	6	5	5	11	15	15	17	8	9	6	4	2	13	4	6	3	2	4	9	13	7	6	6	5	6	6	4	5	231	
그 루	7	8		8	15	2	7		7			10	7	0	0	12	10	12		5	12	5	3	3	10	8	0	0	0	0	5				9	5	8	178	
이행부흥	11	5	4	7	8	1											10	23	16	13	13	5																152	
이런이	11			17			9			28			15			7						87																	
이행노래				17			7			4												28																	
중요업무	8			10			14			11			21			12						76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1. 10. 16-02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me@nate.com

교회의 회복

마16: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회복하다」라는 단어는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거나 어느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recovery)」은 손상이나 해를 입은 후 정상 상태로 돌아오고 복구되는 것이다.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원래 있던 어느 것이 잃은 바 되었거나 손상되어서 이제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복원(復元)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 관한 우리의 이상은 현재의 상태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며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표준에 의해 지배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의 의도와 성취 그리고 사탄의 파괴역사와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약은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심을 계시한다. 또한 신약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그분의 성취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먼저 하나님은 목적을 세우셨고 그런 다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더 나아가 신약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기어들어 와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파괴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록도 제시해 준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파괴하는 사탄의 방법에는 두 면-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있다. 내적인 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손상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사탄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외적으로 파괴하려고 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지니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목적이 가득한 하나님이시므로, 일단 그분이 무엇을 하시려고 결심하시면 어떤 것도 그분의 마음을 바꾸

거나 그분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탄이 파괴한 후에 하나님은 전에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을 다시 하려고 오신다. 이렇게 다시 하심이 곧 그분의 회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 사탄에 의해 잃은바 되고 파괴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되돌리는 것이다.

교회의 회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포로됨에서 되돌아오에 의해 예표 된다(스 1.3-11). 교회의 회복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약은 예표들의 책인데, 가장 크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예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초기에 발생했던 일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적용한다. 예컨대 그들은 유월절을 구속의 체험에 적용하고, 홍해를 건넌 침례의 체험에 적용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매일 만나를 누림과 깨진 반석에서 나온 물을 누림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우리의 생수로 취하는 체험에 적용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의 체험에 적용하는 법도 알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바벨론에 포로 됨과 포로 됨에서 돌아옴-을 적용하는 법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 이제 곧 보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됨에서 돌아옴은 교회의 회복을 예표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한 백성을 얻으셨다. 그 백성은 제사장 나라라고 불리 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출 19:6). 그 백성 그 나라는 교회의 예표였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테반은 심지어 신약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부른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교회의 예표라는 것을 다시 지적해 준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전체는 교회의 완전한 예표

요 모든 것을 포함한 예표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출애굽으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 율월절 어린 양을 통해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나 구속되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들어갔으며, 시나이 산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건축했다. 결국 이스라엘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좋은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은 후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다. 성전을 건축한 직후의 시기는 황금기였다. 그러나 그 황금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주로 솔로몬의 실패 때문에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또한 성전의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우상의 신전에 두었다. 이 어떠한 수치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칠십 년간 머물렀다.

영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그 타락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합당한 합일의 입장을 떠나 분열되었고 흠여졌으며, 잘못된 입장으로 흘러 떠나려갔다. 구약의 예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 삼고 그 둘레에 있었다. 그러나 후에는 그들은 흠여졌으며 많은 곳으로, 특히 바벨론으로 흘러 떠나려갔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실지로 오늘날 믿는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던 것보다 더 흠여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부흥뿐 아니라 회복도 필요하다.

교회의 회복은 비록 「회복(recovery)」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약 안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다. 이 회복은 주로 신약의 나중 서신들에 계시되어 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서신들에서는 교회의 회복이 발견되지 않으나 디도서, 디모데후서, 요한 이서, 계시록에서는 발견 된다. 신약의 이런 나중에서 쓰인 글들에 회복이 충분히 밝혀져 있다.

우리는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분열적이고 변절된 터에서 회복되는 것과 함께, 이 터가 삼일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에 관한 진리들로부터 빛나간 것에서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양태론과 삼신론이라는 이단들을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삼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계시를 붙잡아야 한다. 삼일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진리는 두 방면, 곧 하나의 방면과 셋의 방면이 있는데,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삼일, 셋-하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모든 이단적인 가르침들로부터 회복되어,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온전하신 사람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로서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재이심을 시인해야 한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라는 유일하고 순수한 터와 그 진리들로 되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신약의 믿음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로 되돌아와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에 관한 진리로 되돌아와야 한다. 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인격과 분배에 관한 진리로 회복될 것을 요구한다. 교회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의 회복과 관련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이신 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 유기체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실상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교회의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에 관한 진리 또한 회복되어야 한다. 우주적인 방면에서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이다. 지방적인 방면에서 교회는 많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서 많은 지방들에서 표현된다. 교회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다. 이것은 에스라의 인도 직분 아래서 성전을 재건한 것으로 예표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재건하고 있다. 원수가 교회에 임하는 모든 손상은 주님께 부활 안에서 그분의 몸을 확대할 기회를 드린다.

교회의 회복은 왕국 생활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다. 교회생활의 실재는 왕국이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왕국은 오늘날의 교회생활이다. 교회의 생활로서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성령 안의 기쁨이다.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에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 예표된 왕국 생활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의 회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

〈신약의 결론-교회 제43장에서 발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약 5:8 **여러분도 오래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기를 자원함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정세의 변화에 있지 않고, 재물로 점유당한 데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헌신서 구원받고 벗어나는 것에 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 끝까지, 결코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될 수 있거나 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야고보서는 교회 안의 가난한 자가 믿음에서 부요하다고 말하고(9:5), 5장에 와서는 재물이 부한 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를 말한다. 세상 조류는 사람들이 다 재물과 물질을 쌓아 두는 데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에게 길이 “참으라”(5:7)고 말한다. 이것은 당신의 가난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의 영을 쫓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영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재물을 주의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가난한 상황을 바꾸거나 변경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임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령은 다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그러나 공산화된 지역에서는 주님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부르심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할 뿐 아니라, 또한 환경이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 이 세상은 불같이 당신에게 도망가라고 말한다. 이 세상은 당신의 삶을 먹고 당신을 살릴 수 없게 한다. 오늘날에는 환경의 압박이 없고 다만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은 기회를 붙잡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운 부름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제가 나와서 주님을 섬기기 바란다.

이번에 내가 푸저우에서 상하이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내 앞에서 울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지 모른다. “만일 제가 당신의 말을 일찍 들었더라면 형제자매들뿐 아니라 교회도 무언가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것은 물건을 잃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물건을 잃어버림으로 형제자매들과 교회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도 그것을 얻지 못하게 하고 복음도 그것을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각지에서 편지로 이와 똑같은 상황을 알려 준 형제들도 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부름을 받고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주님도, 교회도, 가난한 사람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5장은 말세의 징조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

에게 계산을 잘 하라고 한다. 우리는 일찍 이러한 것을 잘 계산해 두어야 한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삼고 부자를 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나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준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부자가 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재물은 불같이 사람을 사르며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한 것을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열싸안으므로 불 태워져서는 안되며 또한 그것이 우리 살을 먹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한 명으로는 헌신을 말하고, 다른 한 명으로는 도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손에 재물이 있다면, 형제자매들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 그것을 내보내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강요받아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가난하게 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나는 단순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중에 왕궁에 거하는 자가 없으므로 나도 거기에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사상을 갖기 바란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간증이 있게 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를 봄으로 헌신의 부름을 좇아갈

내가 여기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금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의 하나의 징조다. 이 세상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우리는 재물이 아직 쓸 수 있고, 아직 우리 손에 있을 때를 틈타 그것을 주님께 사용해야 한다. 야고보는 이 단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노사분규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주의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내가 큰소리로 외치거나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우리가 혹 다른 징조는 보지 못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참으며, 징조가 나타나는 이때를 틈타서 재물을 우리 손에서 급히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주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우리 중에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처음 오셨을 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족하고, 첫 번째 기회에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족하다. 두 번째 오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 기회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워터만 나, (주의 회복 안의 성숙된 인도) 제183장〉